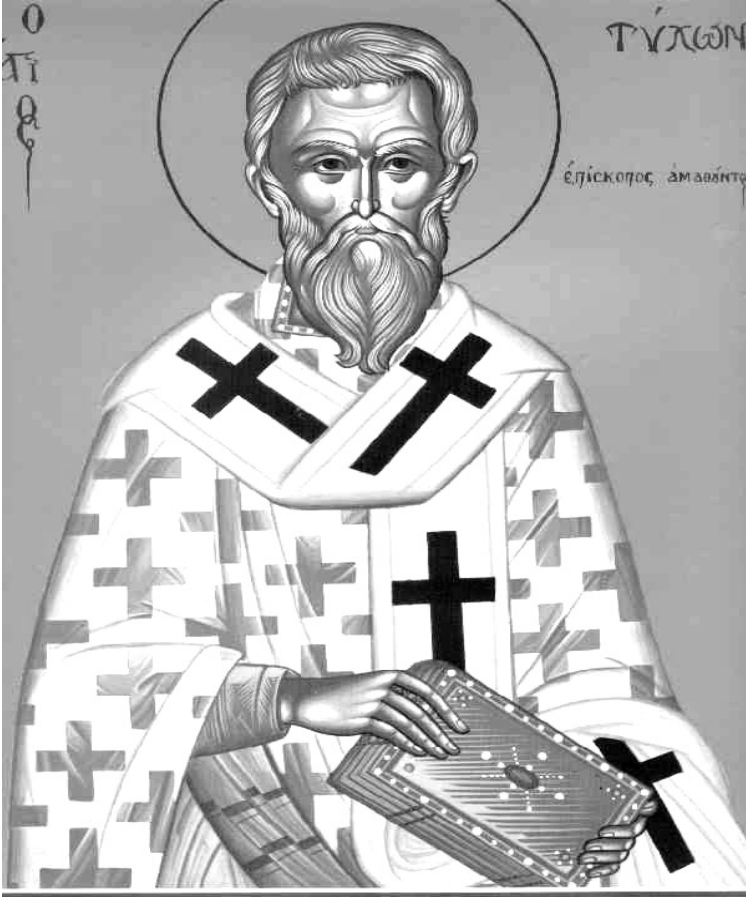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티혼 주교

마태오 제 1주일 / 모든 성인들의 주일

성 엘리사 예언자

제 8조,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8조 부활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 14, A 42
- 모든 성인들의 찬양송 / 269, B 341
- 성당 찬양송
- 모든 성인들의 주일 시기송 / 269, B 341
- 사도경 : 히브리 11:33~12:2 / 269,  
봉독서 114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티혼 주교

우리 교회는 6월 16일 키프로서의 성 티혼 주교를 축일로 기념합니다. 성 티혼의 모범적인 생활과 자라온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합당한 학식을 갖춘 성직자를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인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봉독자를 시작으로 봉사하면서 주교 서품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또한 교회가 적극적으로 신학교와 신학원을 설립하여 성직자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해왔고,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성직 양성 학교는 경건한 원로 성직자들입니다. 하느님 교회의 성직자들을 보려고 원하는 자들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경건한 원로 성직자들 곁에서 가까이 지내면서 저절로 경건한 원로 성직자들에게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의 전례 생활과 전통은 가장 훌륭한 성직자 양성 학교(교육과정)입니다.

## 시련을 극복한 인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때로는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런 시기가 오히려 영적 성장에 보탬이 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고 분명히 알려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온 분들이 바로 성인들입니다. 성인이란 주님과 자신을 일치시킨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을 닮으며, 하느님과 결합하기 위해 노력한 분들입니다.

오늘 '모든 성인들의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온몸으로 실천했기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인의 반열에 오른 것이죠. 성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극복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랐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도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평안한 삶으로도 주님 향한 성인들의 열정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인들의 축일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눈여겨볼 것은 '시련을 극복한 인내'라는 점입니다. 성인들은 구원을 갈망하며 불굴의 의지를 갖추고, 닥쳐오는 고통과 시련과 박해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갔단 말이지요. 여

기에 성인들이 주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을 극복한 인내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10,36) 그리고 주님께서도 시련을 극복한 인내가 구원을 가져온다는 뜻에서 루가 복음을 통해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21,19)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성인들이 겪은, 시련을 극복한 인내를 우리는 지금 각자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신앙의 선조들인 성인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인들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들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사도경 내용도 '시련을 극복한 인내'에 대해서 위로와 찬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며 거룩하게 살아간 이들이 불굴의 의지와 인내로 닥쳐오는 고통과 시련과 박해를 대처해 나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극복한 인내'의 열매는 풍성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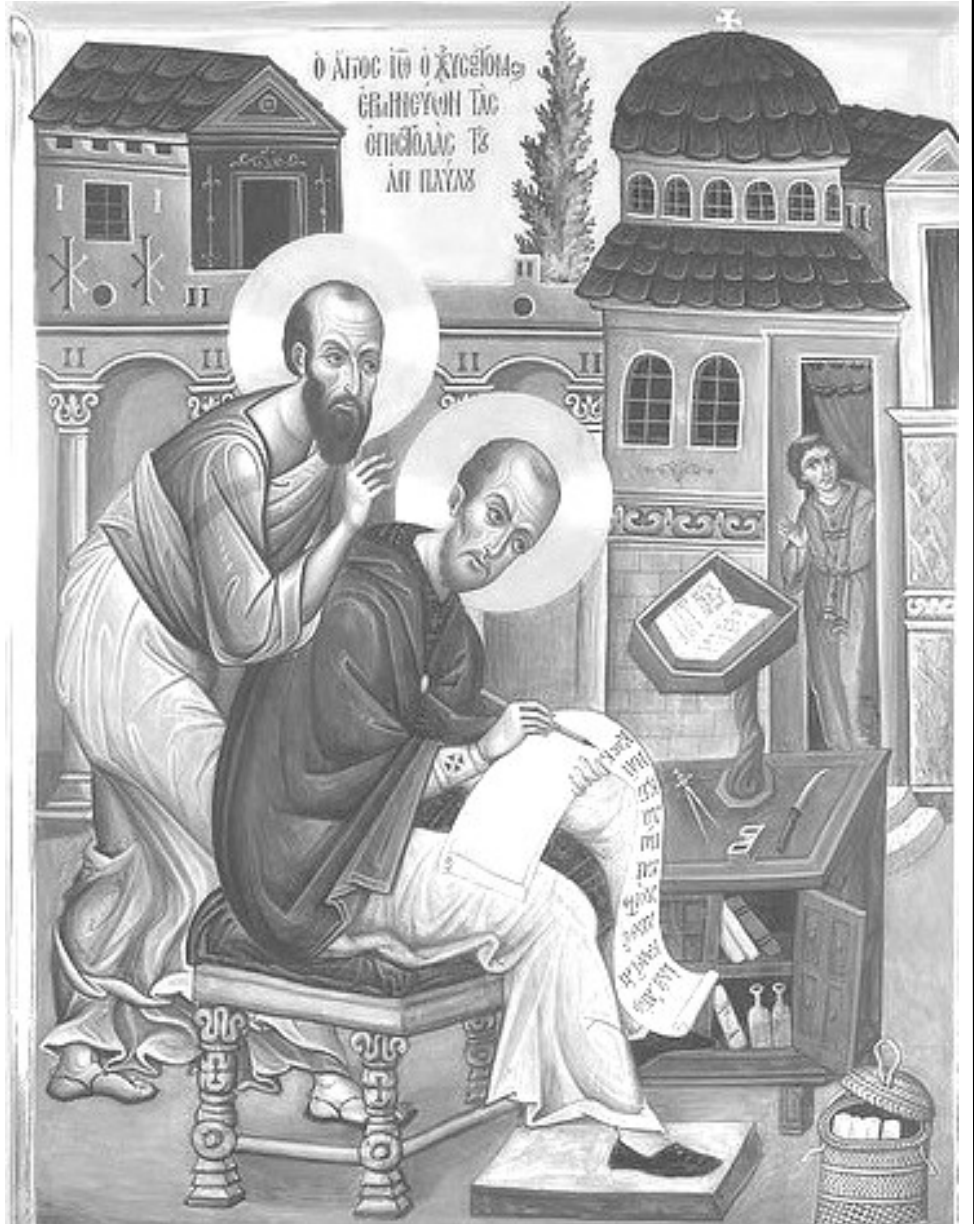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 교회의 모든 과거 경험과 생생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기

정교회는 흔히 ‘교부들의 교회’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리스도교의 초기 교부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정교회 안에 생생하게 보존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교회는 그저 수십년 또는 수백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천년 또는 천오백년도 넘은 그리스도교 초기의 교부들이 정교회 역사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사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정교회’라고 불리어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르고 참된 신앙을 뜻하는 것이다. 정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천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삶과 생각, 신앙, 증언, 죽음 등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우리보다 앞서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였고, 때로는 그 복음을 후손에게 전해 주기 위해 죽기까지 했던 모든 민족과 언어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무리로서 우리 뒤에 존재한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에게 바울로 사도의 서신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도 바울로

따라서 정교인은 성경을 읽을 때, 앞선 이천년의 교회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반응하지 않는다. 정교인은 과거에 성령이 교부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성경을 해석하게 하였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더 나은 이해와 해석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거룩한 전통’이 뜻하는 것이다. 조지 플로로브스키 대신부(1893-1979)가 강조하듯이, 거룩한 전통은 성령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호하고, 정의하고, 선포해온 이천년 역사속 ‘교회의 모든 과거 경험과 생생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 안토니 M. 코냐리스 신부의 책 ‘영적 성장을 위한 비타민’에서 옮김.

아타나시아

## 주 보 소 식

### 대교구

➡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성직 60주년 축하합니다.

오늘 6월 14일이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 성직자가 되신 60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느님과 교회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그리스와 한국에서 성직자로 봉사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건강과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영적 아버지로 축복과 가르침을 오래도록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축하합니다.

➡ “아토스 성산의 성 실루아노스” 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각 및 독서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및 음성도서로 제작.

정교회출판사에서 발행한 “아토스 성산의 성 실루아노스” 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각 및 독서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및 음성도서로 제작,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인쇄물을 읽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요청하여 이 책이 선정되었고, 정교회출판사는 책의 디지털파일을 납본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동일한 요청에 의해 “죽음의 신비”가 납본된 바가 있습니다. 시각 및 독서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및 음성도서 보급에 한국정교회가 이렇게 기여함으로써 정교회출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정교회 선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좋은 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사도축일 금식 시작.

6월 15일 월요일부터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축일 금식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는 수, 금요일을 제외하고 생선이 허용됩니다.(축일표 참조)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사도들의 축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감사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신데즈모스에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을 위해 감사헌금을 해주었습니다. 신데즈모스 회원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구세주 변모 수도원

➡ 40일 입당식.

지난 5월 16일 토요일에 일리리온 김용한 교우와 데스피나 우소영 교우의 김다운 유아가 수도원에서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의 집전으로 40일 입당식을 거행했습니다.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